건설 현장 컨설팅 '호응'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애로사항 청취 · 해결방안 모색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사업장 안전관리 도모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관내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컨설팅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번 현장컨설팅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거에는 부실공사나 미흡한 현장관리 등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으나 올해는 우울한 지역경제 분위기 등을 감안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수렴한 후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핵심이다.

시 감사담당관실이 이처럼 소통형 현장컨설팅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군산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건설 현장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3억원 이상 조경 · 전기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5일간 현장 주요민원 해소방안과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공법변경 타당성, 예산확보 적절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가설구조물 붕괴예방 및 추락방지 등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 제거 할 예정이다.

고남철 감사담당관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소통형 감사행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 '와글와글 취업 JOB談' 성료

학생들 취업 역량 강화 지원

군산대학교 취업지원과와 대학일자리센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교내 학생회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 잡페스티벌 '와글와글 취업 JOB談'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진로설정에 임하며, 취업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취업 역량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JOB담 부스'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잡담부스에서는 졸업선배 멘토링, 직업심리검사 및 입사지원서 컨설팅, 타로 · 그림 카드를 이용한 진로상담, 해외취업홍보, 청년고용정책홍보, 한국가스안전공사, KT&G, 전북은행 등 기업채용상담, 창업상담, AI 면접 체험 등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드라이 플라워, 캐리커쳐, 매듭팔찌 만들기 등의 이벤트가 열렸고, 퍼스널 컬러를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역량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많은 행사가 진행됐다.

정승우 학생처장은 "와글와글 취업잡담에서는 직업과 진로설정에 고민이 많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적인 동기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서,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취업 자신감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학교 취업지원과와 대학일자리센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교내 학생회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 잡페스티벌 '와글와글 취업JOB談'을 개최했다.

군산시 청년뜰, 기업 · 청년 매칭 취업 특강 성황

군산시가 지역기업 & 지역청년 매칭 취업특강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 청년뜰(청년센터 · 창업지원센터)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제7회차 지역기업 & 지역청년 매칭 취업특강'을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기업취업 특강은 도내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의 정보 및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지역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 회차당 취업 성공의 목표를 가진 지역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24일 페이퍼코리아(주) 기업을 첫 시작으로 디오전자(주), 풍림파마텍, ㈜대상, 군산상공회의소, 한국케미라화학(주),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군산특수,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7회까지 운영했으며 이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3회차 군산상공회의소, 한국케미라화학(주) 기업취업특강과 4회차 노사발전재단 & 지역청년매칭 취업특강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응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양 의료기관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연구 진료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원광대학교병원 · 서울아산병원 '맞손'

진료 · 연구 등 협력 체계 구축

원광대병원(병원장 윤권하)과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은 최근 양 의료기관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연구 진료기관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의료기관은 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 강화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 의료의 질 향상,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뜻을 같이 했다.

이 협약 내용 준수를 위해 상호 환자 의뢰, 의학(병원) 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견학), 검사 의뢰(회신), 병원 홍보 상호 지원, 전산화 자문(진료) 지원 등 학문적 교류에서부터 진료, 검사, 경영 정보 전반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광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환자 진료와 의학의 공동 연구 측면에서 상생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윤권하 원광대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뿐 아니라 지향해 나갈 커다란 목표인 연구, 교육, 진료 협력 등 상호 지원하고 상생 할 기틀을 만들었다. 협약의 큰 뜻이 잘 이행되어 두 의료기관은 연구의 질적 향상과 상생 발전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원스톱'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군산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고용과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 창구로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조촌로 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직원과 외부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 신용회복지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 총 54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연계하고자 복지 전담 공무원 2명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센터를 방문한 장모(60대, 수송동 거주)씨는 복지 창구를 방문해 고민을 한번에 해결했다.

장씨는 자녀와 함께 카페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7월 폐업하며 소득이 중단돼 대출이자상환은 물론 생활비 마련도 어려웠다.

안타깝게도 사업자금을 투자해준 자녀들 역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출구 없는 위기상황이 계속됐다.

노모와 가족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장씨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함께 복지상담을 통해 폐업 후 소득이 중단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례로, 실직한 가장에게는 긴급복지를,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러 온 가정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연계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취약계층이 복지 위기가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기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원광대 2021년도 약학과 입시 경쟁률 '8.85대 1'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약학대학 약학과가 지난 13일 마감한 2021학년도 입학지원 경쟁률에서 8.85대 1로 전국 37개 대학 약학과 경쟁률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전북 · 전남 · 광주 등 호남지역 대학에서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학년도에 총 53명을 모집하는 원광대 약학과는 이번 원서접수 마감 결과 469명이 지원해 8.85대 1(전년도 8.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올해 전국 약학과 평균 경쟁률 5.32대 1을 크게 앞질렀다.

원광대 입학관리처는 이번 약학과 입시 경쟁률 약진은 학과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교수진, 졸업 후 취업 경쟁력 등 높은 학과 인지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 경쟁력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치매안심센터 내년 준공

익산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준공된다.

총 사업비 24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모현동 다목적체육관 3층에 연면적 867㎡ 규모로 건립 중이며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 인지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쉼터 등을 갖추고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17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3년여의 기간에 걸쳐 모현동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센터가 운영되면 시민의 치매 예방과 돌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란 센터장은 "현재는 치매상담업무가 국민생활관(남중동)과 보건소(신동)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